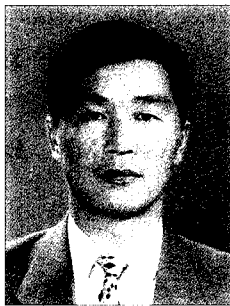


강경 되살리기를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과제

김 정 연
(金正淵)

충남발연구원
지역개발부장



- I.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의의
- II. 강경읍의 여건과 잠재력
- III. 강경읍의 개발방향과 실천과제
- IV. 맺음말

I.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의의

우리나라 소도시의 절대다수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소도시는 고용창출 기반이 취약하고, 기반시설이 불비하며, 교육 의료 등의 생활편익과 직결된 기능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에서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경읍은 광천읍, 예산읍 등과 더불어 충남의 대표적인 쇠퇴 소도읍으로서 과거의 번성했던 때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생적 발전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소도시들은 그 실상과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주된 정책적 관심에서도 항상 벗어나 있었다. 더구나 소도시개발과 관련 있는 건설교통부(도시계획)와 행정자치부(소도읍개발사업)의 정책방향이나 개발 전략이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혼란만 가중시켜왔다.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여력과 권한이 약하여 소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경 되살리기 운동」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충청남도는 중견도시의 성장이 미약하고 다른 도에 비해 강경읍과 같이 쇠퇴하고 있는 소도시를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어, 소도시의 再生(revitalization, regeneration)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모형과 시책수단의 개발을 긴급하고도

우선적인 도정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강경 되살리기 운동」이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선행 정책연구 사례로서 갖는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민선 자치시대의 지역개발은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야만 지속성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읍의 경우 지역주민과 논산시청 모두가 '강경읍의 쇠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지역사회운동의 성립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공유와 문제해결에 대한 공동노력 의지」, 「비전을 가진 리더」,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partnership)」,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점차 구체성을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주체의 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기본토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문제 진단 → 발전방향 선택 → 실천 계획 수립 →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의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계획가·전문가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각 참여 주체간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성, 그리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소도시나 농촌지역은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여건 특성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도입·이식하여 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자원 자산과 잠재력을 토대로 발전을

추구하면서 지역이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內發的 開發方式(endogenous development)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강경읍은 매우 독특하고 고유한 유통·상업기능, 역사·문화자산, 풍부한 수자원 및 다채롭고 아름다운 水環境 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개발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 고유의 자원들을 조화롭게 연계 개발할 경우, 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과실이 누출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경읍이 처한 현실은 매우 괴롭지만 지역 고유의 자원과 자산, 주민들과 논산시청의 강경읍 재생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 등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강경읍의 여건과 잠재력, 발전방향과 전략적 시책과제에 대해서 정리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기본방향 및 실천방안 선택을 위한 토론의 소재를 제공코자 한다.

II. 강경읍의 여건과 잠재력

1. 현상과 문제점

가. 지역경제의 침체와 定住性의 약화

강경읍은 수운과 수산업, 그리고 충남과 전북의 곡창지대를 배후지로 하는 상업·유통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농수산업의 쇠퇴와 육로 중심의 교통체계 형성으로 수

상교통의 결절기능은 완전히 상실했고, 그 결과 상업·유통기능 중에서는 것갈시장과 零細한 소매·서비스업(低次機能 중심)만이 잔존하고 있다.

- 상업 서비스업체수 : 강경읍 753개(충남 읍부 평균 1,080개, 전국 읍부 평균 669개)
- 업체당 종업원수 : 강경읍 1.87명(충남 읍부 평균 2.07명, 전국 읍부 평균 2.12명)

이것들을 대신해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산업기능(제조업, 고차 서비스업 등) 또한 미약한 실정이다. 강경읍은 그동안 새로운 기능의 充塡이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기존의 기능마저도 점차 악화·소멸되고 있는 퇴행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조업체수 : 강경읍 131개(충남 읍부 평균

152개, 전국 읍부 평균 121개)

-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 : 강경읍 5.8명(충남 읍부 평균 8.4명, 전국 읍부 평균 14.7명)
- 제조업 비율 : 강경읍 10.4%(충남 읍부 평균 10.1%, 전국 읍부 평균 11.0%)

이와 같은 지역경제 成長動因의 상실은 주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붙이고(定) 살만한(住) 터전(地)으로서의 매력을 극도로 약화시켜, 충남의 읍급도시 중에서 강경읍의 인구감소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 연평균 인구변화율(90-95) : 강경읍 - 4.85%(충남 읍부 평균 - 4.09%, 전국 읍부 평균 - 6.47%), 전국 도시 평균 2.98%, 전국 시급도시 평균 3.85%)

〈표 1〉 강경읍의 부문별 도시기능

구 분			단위	전국 읍부평균 (100)	충 남 읍 부 평 균		강 경 읍		
						전국읍부 대비(%)	전국읍부 대비(%)	충남읍부 대비(%)	
경 제	총 산 업	업 체 수	개소	1,141	1,769	155.0	1,260	110.42	71.21
		종 업 원 수	명	5,603	6,679	119.2	3,592	64.11	53.78
	제 조 업	업 체 수	개소	121	152	125.6	131	108.48	85.96
		종 업 원 수	명	1,781	1,277	71.7	762	42.78	59.66
	제조업비율(%)	업 체 수	%	11.0	10.1	91.8	10.4	94.43	102.82
		종 업 원 수	%	19.0	19.6	103.2	21.2	111.86	108.42
상 업 서비스	도 소 매	업 체 수	개소	441	739	167.6	539	122.17	72.90
	소비자용품	종 업 원 수	명	894	1,477	165.2	1,010	112.85	68.37
	숙 박	업 체 수	개소	228	341	149.6	214	93.51	62.61
	음 식 점 업	종 업 원 수	명	522	758	145.2	395	75.55	52.07

구 분			단위	전국 읍부평균 (100)	총 남 읍 부 평 균		강 경 읍		
						전국읍부 대비(%)		전국읍부 대비(%)	총남읍부 대비(%)
시 장	정 기 시 장	개소	0.70	0.85	121.4	1	142.72	117.65	
	일 반 시 장	개소	0.50	0.55	110.0	0	0.00	0.00	
	백 화 점	개소	0.01	0.05	500.0	0	0.00	0.00	
	쇼 핑 센 터	개소	0.01	0.05	500.0	0	0.00	0.00	
	대 형 점	개소	0.01	0.05	500.0	0	0.00	0.00	
금 용	금융및보험	업 체 수	개소	19	26	136.8	16	84.91	62.14
		종업원수	명	287	389	135.5	150	52.36	38.58
	통 화 금 용 기 관	업 체 수	개소	3	4	133.3	2	61.76	55.56
		예 금 액	백만원	77,349	94,649	122.4	34,854	45.06	36.82
		대 출 액	백만원	81,614	88,394	108.3	21,006	25.74	23.76
	비 통 화 금 용 기 관	업 체 수	개소	4	4	100.0	4	109.91	100.00
		예 금 액	백만원	45,553	57,333	125.9	32,415	71.16	56.54
		대 출 액	백만원	28,955	36,569	126.3	15,132	52.26	41.38
공 공 행 정	소 방 서	개소	0.04	0.00	0.0	0	0.00	-	
	법 원 지 원	개소	0.20	0.23	115.0	1	500.00	440.00	
	검 찰 지 청	개소	0.07	0.09	128.6	1	1,400.00	1,100.00	
	세 무 서	개소	0.16	0.18	112.5	0	0.00	0.00	
	시 군 구 청	개소	0.61	0.55	90.2	0	0.00	0.00	
	경 찰 서 · 파 출 소	개소	1.62	1.77	109.3	3	185.02	169.23	
교 육	유 치 원	개소	4.97	5.45	109.7	4	80.46	73.39	
	초 등 학 교	개소	3.84	3.41	88.8	3	78.07	87.98	
	중 학 교	개소	1.95	2.09	107.2	2	102.56	95.69	
	고 등 학 교	개소	1.91	2.23	116.8	2	104.87	89.69	
	전 문 대 학	개소	0.08	0.14	175.0	0	0.00	0.00	
	대 학 교	개소	0.11	0.18	163.6	0	0.00	0.00	
	대 학 원	개소	0.08	0.14	175.0	0	0.00	0.00	

구 분			단위	전국 읍부평균 (100)	충 남 읍 부 평 균		강 경 읍		
						전국읍부 대비(%)		전국읍부 대비(%)	충남읍부 대비(%)
의 료	증 합 병 원		개소	0.2	0.2	100.0	0	0.00	0.00
	병 원		개소	0.4	0.4	100.0	0	0.00	0.00
	의 원		개소	6.1	9.9	162.3	5	81.97	50.51
	치 과 병 원		개소	3.4	4.6	135.3	3	88.24	65.22
	한 방 병 원		개소	2.5	4.1	164.0	2	80.00	48.78
	보 건 소		개소	0.5	0.5	100.0	0	0.00	0.00
	10,000인 당 병 상 수		개	51.6	51.5	99.8	12.5	24.22	24.27
문 화 체 육	문 화	공공도서관	개소	0.74	0.77	104.1	1	135.92	129.41
		공보문화원	개소	0.58	0.45	77.6	0	0.00	0.00
		시 민 회 관	개소	0.38	0.32	84.2	0	0.00	0.00
		예 식 장	개소	2.78	4.41	158.6	4	143.96	90.72
		극 장	개소	0.29	0.45	155.2	0	0.00	0.00
	체 육	실내체육관	개소	0.42	0.45	107.1	0	0.00	0.00
		종합경기장	개소	0.34	0.14	41.2	0	0.00	0.00
		정 구 장	개소	1.05	1.05	100.0	0	0.00	0.00
		수 영 장	개소	0.09	0.09	100.0	0	0.00	0.00
		볼 링 장	개소	1.32	1.18	89.4	0	0.00	0.00
생 활 기 반 시 설	상 수 도	보 급 률	%	67.90	67.24	99.0	98.70	145.36	146.79
		1일1인당 급	l	284.16	316.18	111.3	265	93.26	83.81
	하 수 도	수 량	%	50.22	51.70	102.9	57.79	115.08	111.77
		보 급 률	%	57.51	40.64	70.7	98.70	171.63	242.88
	주 택	인 구 기 준	%	20.68	8.94	43.2	1.32	6.38	14.76
		도 로 율	%	90.64	87.71	96.8	85.77	94.62	97.78
		보 급 률	%	26.16	28.57	109.2	20.3	77.70	71.16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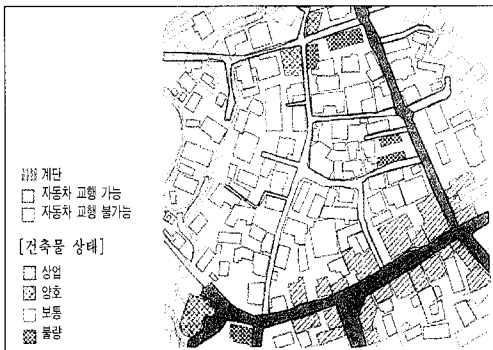
나. 불합리한 도시공간구조

- 호남선 철도가 강경읍의 중앙부를 동서로 관통하면서 시가지를 남북으로 단절시킴에 따라 기능공간과 공공시설의 적절한 배치를 곤란하게 하고 남북시가지의 균형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 국도 23호선의 우회도로 역시 호남선 철도와 나란히 시가지의 중앙부를 관통함으로써 시가지의 단절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강경읍에 연접한 전북 익산군 신학리의 자연 취락들이 도계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획됨으로

써 익산군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강경읍 공간구조의 합리적인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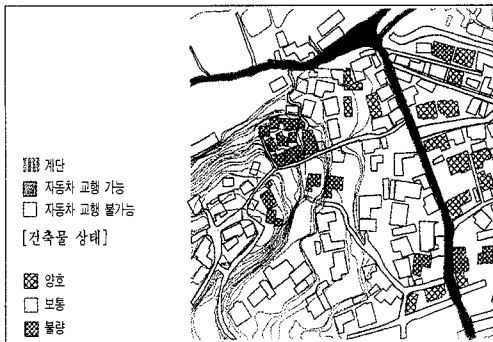
다. 주거환경의 낙후

- 주택, 상점, 공장의 혼재로 주거환경의 안정성과 쾌적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여러 갈래의 가로를 따라 채래상점들이 線的으로 산재해 있는 뒷면에 住宅群이 자리잡는 패턴이 일반적이고, 中路 이하의 가로에 의해 수많은 小街區로 분할되고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곤란하다.
- 전반적으로 노후 건축물이 많다. 대부분의 주택



● 사례 I

- 일반주택지에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는 소규모 점포가 줄지어 있다.
- 街區내부의 세가로망이 발달해 있으나 차량의 진입·교행이 어렵다.
방재·응급상황 발생시 대비가 곤란하다.
- 좌측은 단차 발생에 의해 골목길의 연결성 및 서비스 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 오픈스페이스, 녹지가 없다.
- 불량주택 비율은 비교적 적다.



● 사례 II

- 도시계획도로 좌측의 경사지에는 골목길의 발달이 미약하고 그 서비스 수준도 낮다.
- 경사가 심할수록 불량 주택이 많다.
- 도시계획도로 우측의 평탄지에는 신축건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이다.

〈그림 1〉 강경읍의 주거환경 실태 분석(북옥리 일대)

이 처음에는 “一자” 또는 “ㄱ자” 형태의 평면구조였으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부가됨으로써 한정된 택지 안에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하게 되어 통풍과 채광이 잘 안되고, 주택으로서 안정감있는 건축물의 외관이나 경관 형성이 안되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그 피해가 대규모화할 위험성이 높다.

- 도시 전체적으로 가로망 체계의 위계성과 연결성이 약하다. 中路 수준의 도시계획도로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으나, 그 이하의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 및 주차차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街區 내부의 골목길 발달이 미약하고, 노상 또는 택지내의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의 근린생활공간 및 시설이 부족하다.

라. 자연재해 위험의 상존 및 하천오염, 그리고 경관자원의 훼손 방치

- 금강하류의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 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비가 안되고 있다.
- 시가지 외곽의 논산천과 강경천, 그리고 시가지 내부의 대흥천과 동흥천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시가지 경관이 악화되고 利水 및 親水活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 옥녀봉, 팔괘정, 임이정, 죽림서원 등의 자연과 역사·문화자산이 어우러진 강경의 얼굴과 같은 곳에 주택이 밀집하고 대규모 인공구조물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불량하여 강경의 風格과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옥녀봉〉



〈팔괘정〉

〈그림 2〉 옥녀봉 및 팔괘정 일대의 현황

2. 강경을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의사

가. 강경을 주민들의 생활 영역별 만족도

1) 만족하는 부문

- 주택시설 주택부대시설 거주지역환경, 교육 시설 공급수준, 의료시설·의료시설이용·의료보험·연금, 정보통신시설, 금융시설·입출금·대출, 시장·상점이용, 재난방지·자연재해, 자신의 건강·가족생활·사회활동·지역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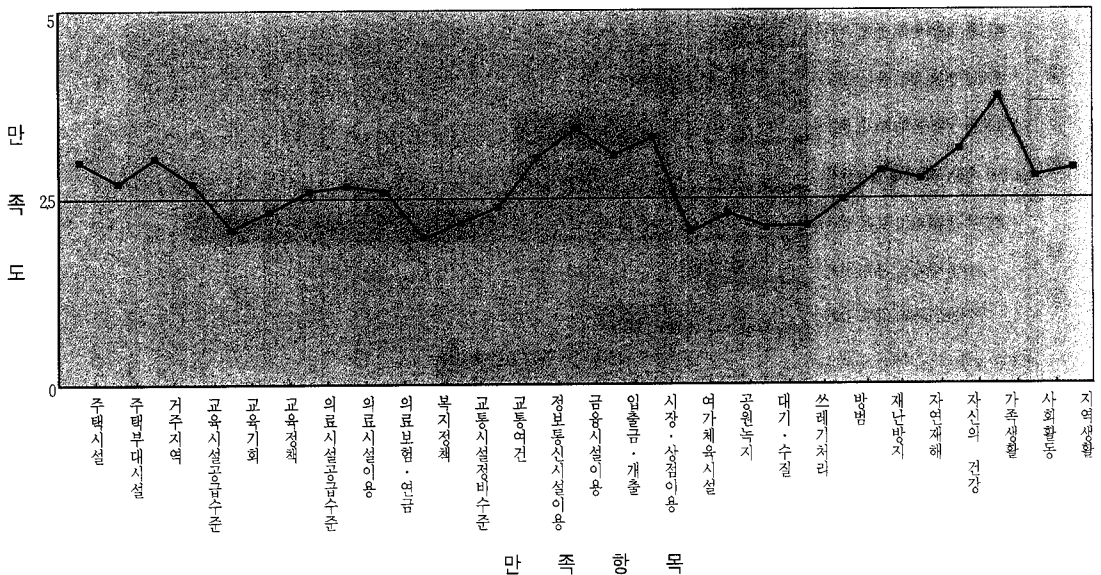
2) 불만족하는 부문

- 교육정책·교육기회, 복지정책, 교통시설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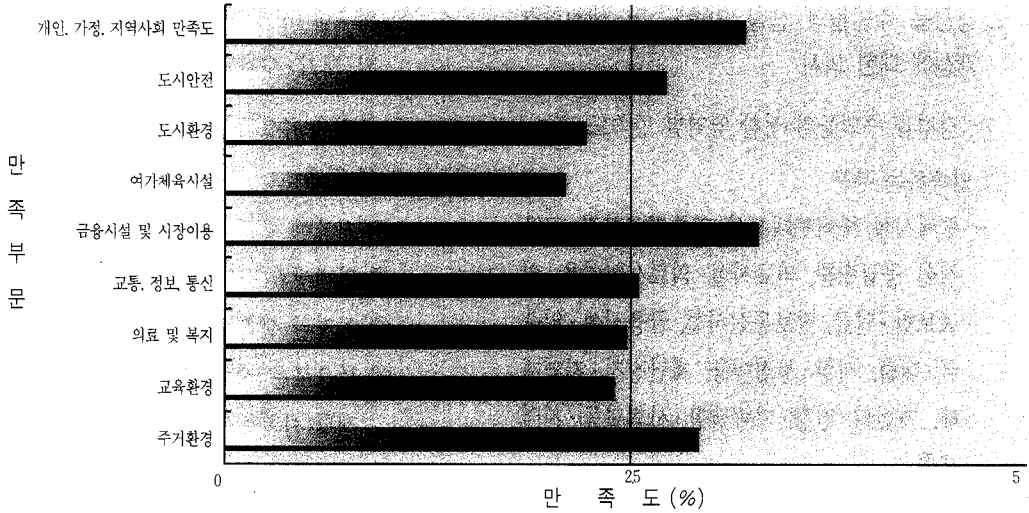
비수준·교통여건, 여가체육시설·공원·녹지, 대기·수질·쓰레기처리, 방법

나. 강경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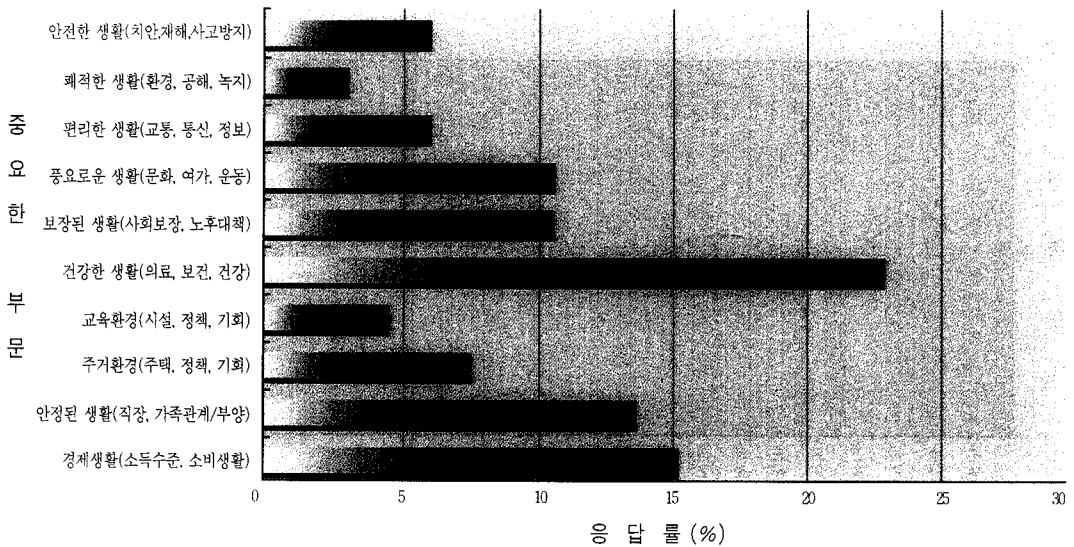
- ① 건강한 생활(의료, 보건, 건강)
- ② 경제생활(소득수준, 소비생활)
- ③ 안정된 생활(직장, 가족관계, 가족부양)
- ④ 풍요로운 생활(문화, 여가, 운동), 보장된 생활(사회보장, 노후대책)
- ⑤ 주거환경(주택, 주거환경)
- ⑥ 편리한 생활(교통, 통신, 정보), 안전한 생활(치안, 재해, 사고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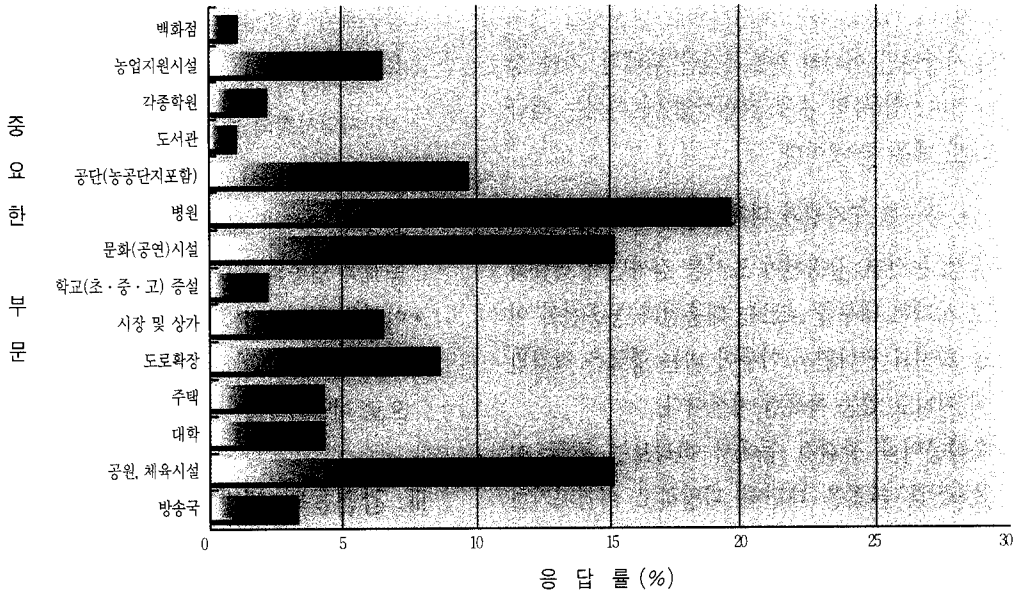
〈그림 3〉 강경을 주민의 생활 만족도(항목별)



〈그림 4〉 강경읍 주민의 생활 만족도(부문별)



〈그림 5〉 강경읍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



〈그림 6〉 강경읍 주민의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의사

주 : 한국지역경영연구소가 「충남도민의 삶의질 향상방안」(1997)에 관한 연구를 위해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다. 강경읍 주민들이 바라는 가장 필요한 시설

- ① 병원
- ② 공원·체육시설, 문화시설·공연시설
- ③ 공단(농공단지 포함)
- ④ 도로확장
- ⑤ 농업지원시설, 시장·상가시설
- ⑥ 주택, 대학

※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3. 강경읍의 잠재력

가. 연담도시권 형성에 의한 네트워크의 경제성
제고 가능성

•근접해 있는 논산시, 강경읍, 연무읍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분담하고(개별 도시들은 주력 기능을 전문화), 교통·정보통신체계에 의해 효과적으로 연계될 경우, 개별 도시들은 다수의 기능을 집적시키지 않더라도 네트워크의 경제성(Network Economy)에 의해 적은 개발 투자비로도 상승적인 발전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지명도가 높은 젓갈시장과 젓갈, 위어, 황복어 등 전통 특산물 보유

•강경의 젓갈시장이 높은 시장 점유력과 지명도

를 지니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경우
젓갈시장뿐만 아니라 향토특산물 판매업, 기타 상
업·서비스업(특히 관광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이다.

다. 풍부한 수자원과 다채롭고 아름다운 수변

- 금강, 논산천, 강경천이 도시를 감싸면서 합류하
고 시가지 내부를 흐르는 대홍천과 동홍천이 이
들 하천과 만나면서 이루어 내는 형국은 강경만
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자산이다.
- 옥녀봉이나 팔괘정 등에서 바라보는 遠景·中
景·近景·接景은 대단히 다양하고 아기자기하
며, 정신적인 풍요와 여유를 제공해 준다. 그래
서 강경을 소재로 한 시와 그림 등 문학 예술작
품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을 것이다.
- 나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전개되는 금강
의 둔치는 다양한 親水活動을 수용해줄 수 있는
아껴두었던 땅이다. 시가지내의 대홍천도 수질
관리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경관자
원이며 다양한 친수공간과 하천생태계를 창조
복원해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 인간적인 규모의 도시

- 강경읍은 대부분의 주거지로부터 중심시가지까
지의 거리가 2km 이내로서, 주민들이 거리에 대
한 심리적 육체적 저항을 크게 느끼지 않고 걸
어다닐 수 있다.
- 이러한 규모의 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
상적인 생활과정에서 인간적인 만남과 교류를
충분히 담보해 주고 나아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형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물리적인 필
요조건이 된다.

마. 지역사회의 재생에 대한 주민의 강한 의지

- 강경읍은 지역사회 구성원간에 지역 재생의 필
요성과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공
동체적 협동 의지 또한 강하다.
- 이것은 강경읍을 되살리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실천 노력을 촉발하고 「운동」을 지속적 성공적
으로 이끌어 가는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III. 강경읍의 개발방향과 실천과제

1. 기본 전제와 원칙

가. 기본전제

- 여건변화를 고려하자(1)
 - 중단기적으로는 저성장기(IMF체제)를 지혜
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 여건변화를 고려하자(2)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환경의 시대, 그리고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다.
 - 이제부터는 쾌적한 환경과 문화적으로 성숙
한 지역, 정보 발신력이 강한 지역만이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 기본원칙

- 무리하게 인구 증가와 산업기능의 수용을 추구
하기보다는 교류인구(외부로부터의 방문자)의
증가를 추구하는 適疎戰略을 선택하자. 아담하
고 아름다운 강경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끌어들

일 수 있을 것이다.

- 가속적인 성장보다는 완만한 성장과 속도를 추구하자.
 - 숙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멀리 보면서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자.
 - 도시개발과 도시민의 일상에서 가능한 한 절약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적용하자.
 - 일본의 「가나자와시(金澤市)」와 브라질의 「쿠리티바시」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표2 참조).
- 「지역경제의 재생」, 「인간적인 도시환경 조성」, 「사람과 자연의 조화」 등의 세가지 기본원칙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가자. 이 세가지를 구성하는 모든 계획요소들은 궁극적으로 강경의 매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여형 개발방식을 추구하자. 다양한 주민참여형의 개발과정이 정립되도록 하자. 강경의 주인인 주민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아무 것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형 개발방식은 성숙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기도 하다.
- 개별 단위환경 중심의 계획에서 공동체 환경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자.

2. 개발방향과 주요 실천과제

가. 인접 도시와 공생적 발전을 도모

논산, 강경, 연무를 중심으로 하나의 자립적인

광역도시권을 형성하여 「개별 도시의 특성적인 기능을 전문화」하고 「광역적 기능의 상호 이용방식」을 활성화할 경우, 광역도시권 전체로서 규모의 경제 창출, 지역주민의 편의성 향상, 활발한 역내의 교류,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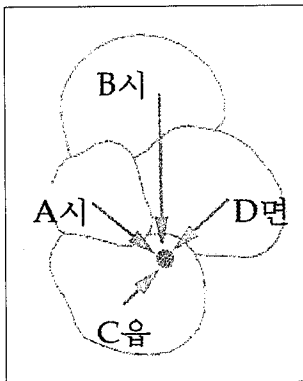
- 특히 「광역적 도시기능의 상호이용 방식」은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러한 잇점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① 상호이용과 ② 공동이용의 두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 공동이용형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복수의 도시가 하나의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상호이용형은 도서관 정보시스템과 같이 동일한 종류이면서 다른 기능을 지닌 도시시설을 네트워크화 하고, 개개의 시설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종합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유형과 다른 종류의 도시시설을 관련 도시가 각각 정비하여 서로 이용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그림 7>의 세번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시에 다목적홀(문화), B시에 종합병원(의료), C읍에 운동공원(스포츠), D면에 연수시설(교육)을 배치하고 이것들을 하나의 예약시스템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지역의 독자성을 살리면서도 네 개의 소도시가 일정 규모의 도시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강경읍에 입지하고 있는 광역적으로 서비스하는 공공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표 2〉 두 도시의 경험이 주는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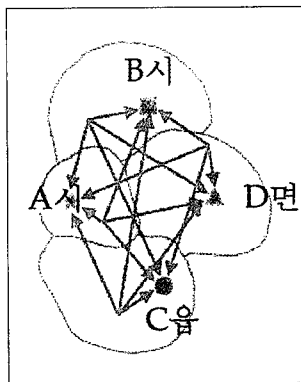
구 분	가 나 자 와 시(金澤市)	쿠 리 티 바 시
도 시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와 전통 속에 싹튼 새로운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45만의 역사도시(작은 교토) - 인근의 도야마시(富山市)는 도쿄 자본으로 급속 성장을 추구했으나 외부자본이 유출되자 경제침체 및 장기간 이타이 이타이 병에 시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임금 300불의 저소득 수준과 경제력을 극복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도시 • “우수환경 및 재생상”수상(UNEP, 90) “지구에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Time, 91)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시”(HABITAT, 96)
개 발 철 학 및 방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발적 개발이론(Endogenous Development Theory)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근대성의 비판에서 출발, 지역자립성 방어 -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보다 시민의 삶을 지키려는 인간중심의 개발철학을 지향 • 고향의 역사·산천·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완만한 성장과 속도를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속은 질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완만한 저하(pull-down)가 필요하다는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라는 인식 • 도시발전 과정이 곧 시민들의 에너지를 일깨워 온 과정이었음 • 돈이 많이 드는 개발방식을 거부 • 상식적인 접근, 참여형 발전모델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태적인 마스터플랜이 동태적인 도시문제의 본질을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인식하고 단순 유연하고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대안 개발에 초점 -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주민과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도시 전반을 개조했음
주 요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인쇄·섬유·봉제 등 오랜 전통의 중소기업과 기술을 보존하여 모든 단계의 부가가치를 지역내로 귀속시키고 각 부문의 제조업과 유통·서비스 부문을 긴밀히 연결시킴으로써 “연관산업의 集積”을 이루어 냈음 • 이러한 경제적 토대 위에 문화·교육·의료복지를 포괄하는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나은 도시에 대한 꿈은 언제나 그 주민들의 머리 속에 있다. 우리시는 낙원이 아니며, 다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버스 시스템·학교·보건소를 제공할 때 시민들은 각자가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아이들과 환경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Jaime Lerner시장)

구 분	가 나 자 와 시(金澤市)	쿠 리 티 바 시
주 요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문화의 집적이야말로 산업의 인큐베이터이며 그것이 곧 “삶의 질”이라고 자각 - 가나자와 경제동우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프로그램은 오히려 문화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동경 一極集中과 수직적 분업구조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는 효과적이지만, 新幹線을 통해 지방을 동경에 예속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무력화하고 자연·인간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리티바시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自己依存이다. 이 도시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 도시의 많은 공원의 산책로는 음료수병으로 만든 램프가 빛을 발하고, 市 환경국 사무실은 낡은 전화간판들을 이용해서 세워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부가 사람들의 에너지를 일깨우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Time, 93.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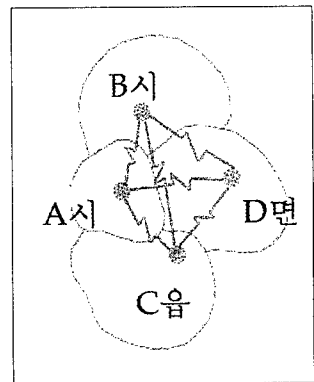
공동이용형



종합이용형(同種異機能)



상호이용형(異種)



〈그림 7〉 광역적 도시기능 이용의 유형

나. 활력있는 경제·산업기반의 조성

- 기존 산업기능(상업·유통)의 특화 및 전문화
 - 시장환경의 개선(토속성, 고유성, 정취)
 - 정비방식의 선택 : 기존의 방식, 주민참여에 의한 상업지 정비수법

- 젓갈, 황복어 등 전통 특산물의 상표, 용기, 디자인 등을 통한 상품가치 제고
- 상인조합의 마케팅 역량 제고에 의한 표적 시장(target market) 확대
- 홍보, 이벤트, 관광상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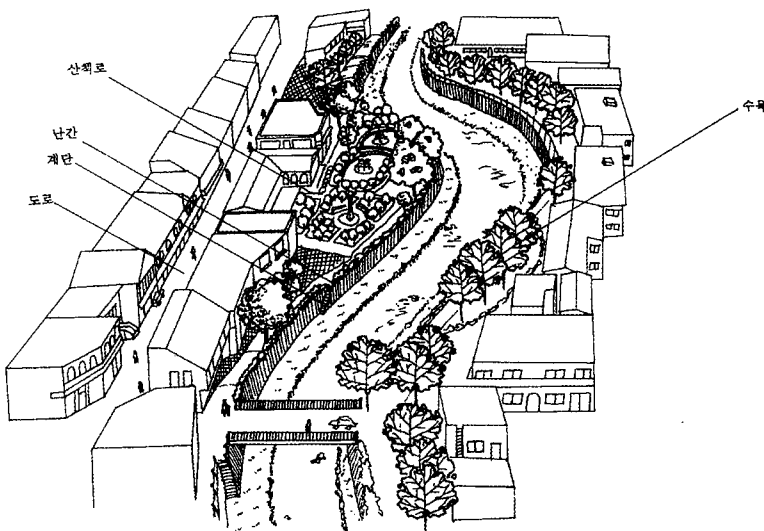
-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산업기능의 도입
 - 신산업지구 개념에 의한 복합산업단지 개발방식 적용

다. 지역의 매력과 개성 창조

- 물의 고장 江景(水와 綠의 江景) 만들기
 - 금강 주운의 거점기능 회복(나룻터) : 금강종합개발계획의 조기 수립이 필수적
 - 자연형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개발<그림 8 참조>
 - 옥녀봉, 채운산 공원 등 녹지공간의 복원·확대
- 조선조 선비문화의 본고장으로서, 번영을 누렸던 곳으로서 이미지 제고
 - 팔괘정, 임이정, 죽림서원 일대를 문화공간

으로 정비

- 전통건축물의 보존·재생, 문화의 거리 조성
- 향토자료관(강경역사 자료관 수집, 생활사 모형관 등)
- 향토적인 멋과 맛을 발산하는 활력거점으로 서 젓갈시장 육성
 - 젓갈시장 환경개선 : 주민참여형 상점가정 비수법 등 적절한 정비방법 모색
 - 주민이 동의하는 섬세한 설계에 의한 축제 시장화(생활의 향기가 있는 곳)
-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연계(networking)하여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모색



<그림 8> 도시내 중소하천 정비 개념도

라.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시환경 가꾸기

- 여유롭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기존 주택지의 정비 : 주민 참여형의 다양한 정비방법 도입(그림 9 참조)
-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 주변환경관의 조화, 지역 경관 고려
- 시가지 외곽의 농촌형 취락지구 : 생태마을(Eco Village)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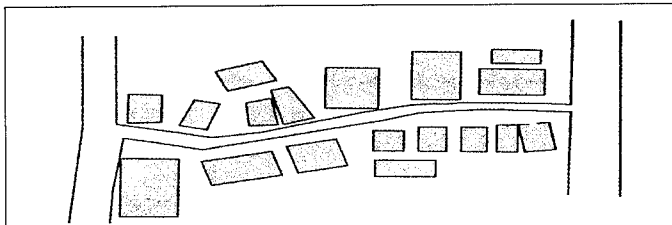
• 공공영역의 확보

- 소공원, 광장, 도서관, 향토사자료관(가칭), 지역사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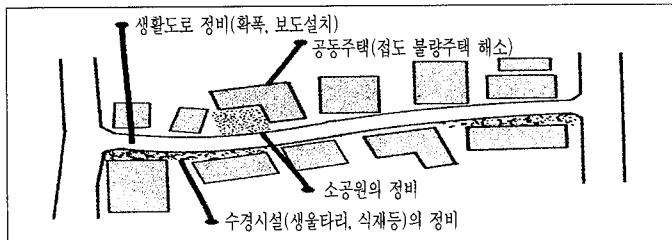
• 공원·녹지 네트워크의 구축

- 옥녀봉, 팔괘정, 채운산을 녹지 거점으로 하여 하천·도로·제방에 의해 연결되는 다양한 하천 녹지축 구축
- 비오토프, 생태늪지 등의 조성

●유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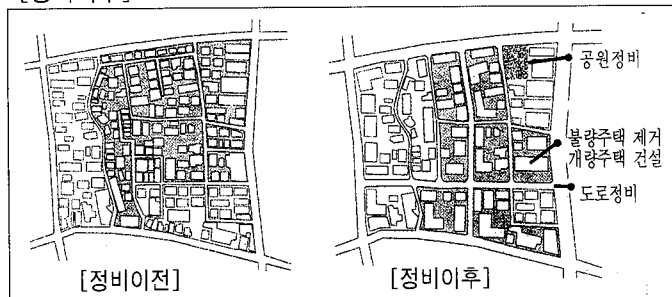


[정비이전]



[정비이후]

●유형 II



〈그림 9〉 주택지 정비방법

-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 조성
 - 활력거점, 명소 Triangle 연결로, 철도역과 주요 기능지역, 통학로 등

- 하수처리장 및 배수장의 조기 완공

마. 인간미 넘치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

- 「지역문제의 진단 → 지역발전방향의 선택 → 계획수립 → 집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판단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공동체의 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자율적인 행동규범 정립, 갈등요인의 자체적 해결
- 공동체 활동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 확보
 - 公的인 談論을 日常化할 수 있는 소공원, 도서관, 문화의 집, 향토사자료관, 골목길 등의 확충이 필요
- 다양한 주민조직(NGOs)을 결집하여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육성

IV. 맺음말

이상과 같은 의미를 갖는 「강경읍 되살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강경읍의 발전방향, 전략적 실천과제, 개발방법, 주체들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公的인 論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경읍 되살리기 운동」이 처음부터 이러한 조

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니 만큼, 운동(또는 계획) 자체가 논의·시행·집행되는 가운데 스스로 발전되어 체계화되는 發展的 計劃過程(developmental)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경읍 되살리기 운동」은 漸進的 計劃過程(incremental planning)으로 인식하여 진행함으로써, 단계별로 개선되어 보다 현실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단 한번의 계획으로 원하는 목표상을 달성하고자 한다거나 최상위 차원에서 최하위 차원까지 청사진식의 마스터 플랜을 짜기 보다는 수차례의 수정과 시행착오를 통해 점차 바람직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방식이 보다 실천성과 지속성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열린중남